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993호 1판 (음력 4월 1일)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우암학원 창학6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5·18 추모 절정…오늘 국립묘지·옛 도청앞 따로 기념식

5·18 35주년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관련기사 3·6·7·16·22면〉

전야제 행사 참석 김무성 대표
시민들 항의 10분만에 자리 떠
박근혜 정부 기념식 또 파행
갈등·분열 막기 정치권 노력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행사가 두동강 난 채 따로따로 열린다.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제창(齊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다. '파행' 기념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참석한 지난 2013년 이후 내리 3년째다. 올해 정부주관 기념식은 대통령, 국무총리, 유족, 5·18 직접 피해당사자도 없는 사상 초유의 상태에서 치러질 상황에 직면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와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두 기념식 모두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아 열리는 행사지만 한쪽에서는 동원된 학생들이 빈 자리를 채운 채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가족 등이 참여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두 제창하는 등 사뭇 다른 기념식을 치르게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정당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은 5·18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반면, 최근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과 광주·전남 시·도 의원을 비롯, 광주·전남 시민단체 등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3년째 5·18 기념식이 '파행'으로 치러지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전야제에는 시민·대학생·외국인 등 5000명이 참석해 5월 정신계승을 다짐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시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와 주최 측의 요청으로 10분만에 자리를 뜨는 소동이 빚어졌다.

한편, 5월 열사들의 정신을 추모하고 이어받으려는 5·18 국립묘지 참배객들의 발길은 17일 절정을 이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떠나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전야제'에 참석하려했지만,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참석하지 못하고 수행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국 경색·야당 갈등 '오월정신'으로 풀어낼까

5·18 35주년 전야제·기념식
김무성·문재인 대표 참석
여야 국회의원들 대거 광주에

제35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계기로 공무원 연금 개혁 등으로 경색된 정국과 제1야당의 내홍이 풀릴 것인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5면〉

우선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되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참석한다. 두 대표는 의전상 좌석에 나란히 앉을 전망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내홍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비노 진영의 책임론에 대해 '정면 돌파' 입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주 내에 당내 제 세력이 참여하는 '초계파 혁신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달 중으로 쇄신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혁신기구에서는 공천과 인사쇄신, 당무혁신 등 당 쇄신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초계파 혁신기구에 대해 비노 진영의 반응은 싸늘하다.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혁신 요구를 '공천 지분 챙기기'라고 규정한 문 대표와 친노 진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오찬 회동도 관심사다. 이날 회동의 메시지는 새정치연합의 내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친노 패권주의 청산과 책임론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박지원,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이윤석, 황주홍 의원 등 비노 진영 의원들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메시지는 문 대표의 입장 표명 건에 대한 유감과 함께 당내 화합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친노 주류 진영에 대해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어? 성경이 읽어지네!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새정치 내홍 갈수록 심화…광주·전남 민심 들어보니

광주일보 지령 2만호 여론조사

"문재인 대표 사퇴" 33.9%
"사퇴할 필요 없다" 24.3%
"친노 2선 후퇴를" 19.2%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 결과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지령 2만호(27일)를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백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5일 광주·전남지역민 540명으로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문 대표의 사퇴론에 대해 응답자의 33.9%가 '재보선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문 대표가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응답률은 24.3%였고, '문 대표의 사퇴보다는 친노세력의 2선 후퇴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19.2%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22.6%였다.

■ 재보선 책임 문재인 사퇴여부 〈단위:%〉

사퇴 33.9	반대 24.3	19.2	모름 22.6

사퇴보다 친노 2선 후퇴

■ 신당 창당 〈단위:%〉

찬성 35.6	반대 39.1	모름 25.3

지역별로는 광주가 38.1%로, 전남(30.7%)에 비해 사퇴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34.3%)에서만 '사퇴 반대'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 연령층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신당창당 및 야권재편론과 관련해서는 '신당창당 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단결해야한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다. '신당 창당을 통한 야권재편'은 35.6%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25.3%였다. 지역별로 광주에서 신당창당을 통한 야권재편 의견이 우세했고, 전남은 새정치연합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광주에서는 '신당창당을 통한 야권재편' 의견이 40.9%로 '신당창당 보다는 새정치연합 중심 단결'(37.7%)보다 많았다. 전남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단결해야한다'는 답변이 40.2%로 높았다. 신당창당 의견은 31.7%였다.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거주 19세 이상 유권자 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조사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4.2%포인트였다.

한편, 광주일보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호남·호남인' 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으며, 전체 조사결과는 오는 27일 지령 2만호에 게재된다. / 최권일기자 cki@